

profile

작곡가 프로필

작곡가 백현주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에서 작곡전공으로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창작전공으로 전문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부산, 서울 및 베를린 등지에서 개인 작품발표회를 수 회 열었으며 국립합창단과 부산, 울산 시립예술단 등 여러 연주단체에서 위촉작품과 편곡작품을 다수 발표하였다.

극음악에 많은 관심을 갖고 뮤지컬 <왕의 녹차>, <날으는 신밧드>, <인형야! 친구하자> 및 연극음악 등을 작곡한 바 있으며 렉처콘서트의 기획과 진행을 맡기도 하였다. 2010년에 한국최초의 오페라 <아리랑>의 작, 편곡을 맡기도 하였으며, 2013년에 해운대문화회관 기획 창작오페라 <해운대-장산국 이야기>를 작곡하였다.

현재 부산작곡가단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부산대와 부산교대 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다.

작곡가 백현주



제 5 회 백현주 작곡발표회

노래 I

2013. 12. 17.(화) pm.7:30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제 5 회 백현주 작곡발표회

노래 I

2013. 12. 17.(화) pm.7:30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

입장료: 초대

문의: 051-513-1009



※ 본 공연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program

프로그램

여는 기도

김성철목사 (부산행복한교회)

I. 성가합창곡

Sanctus

Wonderful Peace

시편 46편

• 지휘: 최정일

• 반주: 신희정

• 합창: C's Choir

II. 한국시와 민요주제에 의한 합창곡

첫사랑의 강

류시화 시

마른장작

김용택 시

바다에서 은빛 꿈을 꾸다

전남 가거도 멀치잡이소리

• 지휘: 최정일

• 반주: 신희정

• 합창: C's Choir

intermission 휴식

III. 편곡작품

Sing, Sing a Song

Carpenters

아름다운 강산

신중현 곡

우리가 어느 별에서

안치환 곡

철망 앞에서

김민기 곡

내나라 내겨레

송창식 곡

• 합창: C's Choir

• 피아노: 백현주

• 일렉기타: 박진모

• 베이스기타: 송봉근

• 타악기: 송희철, 양진일, 김영민

profile 연주자 프로필



지휘 최정일

- 미국 템플대학교 음악이론과 학사졸업
- 미국 예일대학교 합창지휘과 석사졸업
-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합창지휘와 문헌전공 박사졸업
- 안산시립, 부산시립 합창단 객원지휘
- 전) 템플여성 합창단, Ars Nova 합창단, 샴페인-어바나 커뮤니티 합창단 지휘지역임
- 현) 고신대, 동의대, 인제대 외래교수, 한국 합창조직위원회 예술위원



타악기 송희철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 경성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졸업
- 영남대학교 윈드 오케스트라 및 대구시향 협연
- Litin Orchesta "Cobana" 음악캠프 참가
- 대전현대음악제 초청 독주회
- 제 21회 MBC 부산음악콩쿠르 입상
- 현)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수석 단원
- 사) 신라대, 동서대 대학원 출강
- 클럽 라틴 비트 퍼커션 및 금정 유스 타악 오케스트라 수석강사
- S. Modern Percussion 앙상블 음악감독



타악기 양진일

- S. Modern Percussion 앙상블 단원



타악기 김영민

- S. Modern Percussion 앙상블 단원



일렉기타 박진모

- 계명대학교 작곡과 졸업
- 울산예고 출강
- Alive Ministry 뮤직디렉터
- Aline 실용음악학원 강사
- 조이플 사인, 손영환, 히즈윌, 허튼수작 음반 참여
- 김명식, 함부영, 김경현 공연 세션 및 오프닝 공연



베이스기타 송봉근

- 부산 예술 대학 실용음악과 졸업
- 서울 장신 대학교 예배찬양사역 대학원 졸업
- Alive Ministry Music Director & Bass
- Aline 실용음악학원장
- 손영환 1집 '잃어버린 이름들' 프로듀싱
- 서재현 1집, 손영환 1집, 김미현, 이은창, 월드비전 기아대책, 허튼수작, 임송현 등 각종 앨범 레코딩 세션
- 창신대학 음악과, 동의대, 울산예고 출강



피아노 신희정

note 곡 해설

I. 성가합창곡

첫 번째 무대는 무반주 및 피아노 반주가 있는 성가 합창곡들의 모음이다. 첫 곡 Sanctus는 미사 통상문 중의 네 번째 곡인 Sanctus(거룩하시도다)의 라틴어 가사로 무반주 합창곡을 만든 것이며 두 번째 곡 Wonderful Peace는 익숙한 찬송가인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를 무반주 합창으로 만든 것이다. 시편 46편은 10년 전 어떤 강대국이 힘자랑을 하느라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자 할 때 구상한 작품이다.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며 여호와와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힘있는 선율에 담아 표현하였으며,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편 46편 가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환난중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뒤물든지 그것이 넘쳐서 산이 요동할찌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흘러 하나님 성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매 성이 요동치 아니할것이라 새벽에 우리의 하나님이 도우시리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불찌어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불찌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도다 너희는 이제 그만 싸워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찌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픔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II. 한국시와 민요주제에 의한 합창곡

첫사랑의 강 류시화 시

그여름 강가에 앉아 얘기를 나누다가 널 처음 사랑하게 되었지 물속에 잠긴 발이 신비로워 검은 돌 틈에서 흰 발가락이 은어처럼 헤엄치는 듯 했지 너에 대한 다른 건 잊어도 그것은 잊을 수 없지 이후에도 너를 사랑하게 된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 첫사랑의 강 물푸레나무 옆에서 너는 아직도 나를 기다리지 많은 여름들이 지나고 나 혼자 그 강에 갔었지 그리고 두 발을 물에 담그고 그 자리에 앉아보았지 환영처럼 물속에 너의 두 발이 나타났지 그 희고 작은 발이 나도 모르게 그 발을 만지려 물속에 손을 넣었지 우리를 만지는 손이 불에 데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한다 할 수 있는가 기억을 꺼내다가 그 불에 데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했다 할 수 있는가

그 때 나는 알았지 어떤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한 때 있던 그 곳에 그대로 살고 있다고 떠나온 건 우리자신이라고

마른장작 김용택 시

참 재미있는 시, 솔직담백하고 맛깔스러운 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정겨웠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 사투리로 된 노래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 시를 택하여 합창곡을 만들게 되었다. 전라도 말의 어감을 살려보고자 했으며, 다소 불안정한 감정변화의 추이를 음악의 밀도 및 원근감을 통해 최대한 표현하고자 하였다.

비올랑가 비오고나면 단풍은 더 고울텐디 산은 내맘같이 바작 바작 달아올를텐디 큰일났네! 내맘 같아서는 시방 차라리 얼릉 워 다 저부렸으면 좋겠는디 그래야 내 맘도 내 맘도 진정될 터인디 시방 저 단풍보고는 가만히 못 있겠는디 아! 이맘이 내 맘이 아니여 아! 이맘이 내 맘이 아니여 시방 이 맘이 내 맘이 아니란말시 거시기 뭐시냐 저 단풍나무 아래 나도 오만가지 색으로 물들여 그리갓고는 그냥 뭐시냐 그리갓고는 거시기 뭐시냐 거시기 그리갓고는 획! 타불고싶당개! 너를 생각하는 내 맘은 시방 짧은 가을빛에 바작 마른 장작개비갈당개 바작 마른 장작이여 장작

바다에서 은빛 꿈을 꾸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의 멸치잡이소리를 소재로 한 합창곡이다. 원래 멸치잡이 소리는 조업순서에 따라 여러 곡으로 이루어진 전라도의 대표적인 뱃노래인데 이 곡에서는 그 중 '노젓는 소리'와 '술배소리'를 참고하였다. 단순하지만 힘있는 노동요의 선율을 변화있는 피아노 반주부의 짜임새를 통해 다각적으로 표현하려 한 곡이다.

III. 편곡작품

그동안 여러 합창단들을 통하여 발표했던 편곡작품들과 이번 발표회를 위하여 새로이 편곡한 곡들을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및 라틴 퍼커션 등과 함께 작곡자의 피아노반주로 연주한다.